

波高 높은 정보혁명시대의 물결

정보화사회의 광범한 문제 다룬 책 활발

‘보다 빠르게,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게’를 목표로 하는 정보처리기술능력이 급성장함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화사회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교환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추적인 원동력인 동시에 거의 모든 조직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무형의 자산인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정보화사회는 유토피아인가

엘빈 토플러는 그의 두번째 저서인 「제3의 물결」을 통해 ‘컴퓨터 산업의 발달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보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정보화사회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 역시 「후기 산업 사회」라는 저서를 통해 ‘인텔리겐차가 지배하는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이들 두 학자가 제시한 ‘장미빛 꿈’이 과연 실현가능한가라는 문제제기에 집결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들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낙관론과 비동맹 중립국가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시각에서의 비판론이 갈등, 타협을 되풀이하며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서점가에 선보이고 있는 관련서적들은 대체로 정보, 정보화사회의 개념과 현황을 해설한 개론서와 실무지침서, 정보화사회에 관련한 외국의 비판적 논의들을 소개한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아직 정보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우리의 시각으로 담아내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情報學특강」(윤은기 저 / 김영사)와 「정보체계론」(강석우 편저 / 박영사) 등은 대표적인 개론서로, 정보 및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변화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 활용할 것인가가 21세기를 준비하는 기업의 관건이라는 취지 아래 정보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책들로는, 기업교육프로그램과 연구소 운영을 겸하고 있는 ‘유나이티드컨설팅사’의 일련의 책들이 먼저 눈에 띈다.

「정보력과 휴먼웨어」(윤은기 저), 「新情報整理學」(川勝久 著 / 김유식 역), 「정보전략 실천 매뉴얼」(윤은기 저), 「파리공원의 해시

계」(윤은기 저), 「인간과 정보활용」(김광영, 윤은기 저) 등 ‘정보전략신서’라는 이름으로 기획 출판된 책들이 그것으로 이 책들은 정보전략체계의 수립과 정보활용의 노우하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정보사회와 기업문화」(이어령 외 저)는 정보시대에 적응해나가기 위한 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전문문화 속에서 창조적으로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번역서와 편저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무비판적 수용과 도입에만 급급했던 정보화사회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논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정보화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외국의 논의의 성과들을 소개한 책들이다.

「국제정보유통과 문화지배」(김지운 편저 / 나남)은 미국 등 선진세계의 ‘정보유통의 자유’ 독트린과 이에 맞서는 제3세계 사이에 그동안 진행되어온 논쟁의 과정을 정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선진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위위가 초래한 현존 국제정보질서의 고질적인 병폐와 제3세계에 의한 무비판적인 구미기술, 문화수용이 결과한 문화종속의 본질을 파헤치는 한편, 정보화사회가 야기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외국논의 소개한 번역서가 주종

「국제정보질서문화론」(유네스코 편 / 김영석 역 / 나남)은 1986년 핀란드 유네스코 위원회가 발간한 「Approaches to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번역한 책. 1980년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 이후 유엔 산하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전개되어온 국가간 정보질서에 대한 이슈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 책은 문제제기 차원의 미완결 상태에서 끝난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유통정보질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특징.

허버트 윌러의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를 번역한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강현두 역 / 나남)는 정보화사회를 현대자본주의국가가 처한 위기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파악, 세계지배구조질서의 재편을 위한 정보메카니즘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뉴미디어들의 메카니즘을 고



찰하는 것으로부터 정보화사회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는 책들도 있다. 나남 출판사의 「매스 미디어 정치경제학」(김지운 편) 「뉴미디어와 정보사회」(박홍수·김영석 편) 등이 대표적인 책들이다.

한편, ‘제3세계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정보제국주의」(강준만 저 / 한울)는 영문으로 씌어진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고쳐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쓴 책이다. 뉴스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의 정보유통이 미국과 몇개의 서방세계에 의해 독과점형태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세계정보질서를 ‘정보제국주의’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제3세계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신세계정보질서’와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1945년부터 1988년 레이건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내외 정책적 측면에서 ‘정보유통’에 대한 양 입장의 갈등을 고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데올로기와 정보사회」(방정배·송해룡 저 / 성대출판부)는 소유와 통제를 통한 정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내포하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문제들을 소개한 책들의 출간이 활발한 데 비해 국내의 현안들에 천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책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통신문제연구회에서 지난 89년에 펴낸 「미국의 통신개방압력과 통신주권」(백산서당)과 최근에 펴낸 「통신개방과 정보사회」(폴빛)가 전부인 셈. 이들 책은 모두, 최근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통상회담 등을 통해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기술과 정보의 종속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을

위협하며,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통해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그간의 협상과정과 회담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통신시장개방압력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국내 현안 천착한 저서는 드물어

정보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나, 우리나라 정보화의 수준에 비해 국내저서가 이렇게 빈약한 원인에 대해 송해룡(원광대 신방과)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정보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술변동을 사회변동과 연결시켜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사회철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연구역량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정보혁명시대로의 진입이 초래하고 있는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거부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단계에 맞는 기술의 도입과 주체적인 수용과 개발 및 발전이 정부, 기업, 국민 각자의 올바른 인식과 노력에 의해 가능해진다면 그 올바른 관점의 제공을 위한 노력의 한 몫을 출판계에도 기대해본다. 보다 쉽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풀어쓴 관련서적들에 대한 독자의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렵지 않은 까닭이다.

—박남정 기자